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

평안들 하셨는지요? 사역지에 어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만 20년이 넘었네요. 지난 시간을 뒤 돌아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간 믿고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제가 느끼는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통한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공주의를 떠나 예수가 저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올해는 눈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 반면에 혹독한 겨울 추위로 건강이 조금은 힘들지만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

아내는 여전히 기력이 없지만 힘을 내고 있고 저는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르이는 한국에 들어가 적응하고 있는데 외모만 한국인이지만 내면은 외국인 같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서서히 취직 자리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둘째 자식은 네델란드 암스텔담 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6개월 가있는데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그간 카작에 살면서 어려웠던 환경에 있다가 선진국의 환경에 사는 것에 너무 기뻐하며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내 자식은 12학년 마지막 학기에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 준비에 힘들어 합니다. 올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3월에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두바이로 가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행기 값을 스스로 마련할 정도로 믿음직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제각기 길들을 찾아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카 복지센터 준공검사 완료와 사역시작 - K.F.H.I

복지센터의 준공검사를 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는데 6개월간 서류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뇌물 없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센터는 어린이 사역 (C.D.P)과 직업훈련을 주로 하게 되며 제일 낙후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제사역과 호스피스사역, 오랄만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사역, 한국문화사역 등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보여주신 사역들을 충실히 하면서 주님이 열어 주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은 엘도스 NGO의 현지인 디렉터 (최 에빌레나)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지인에 이양을 고려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아대책의 고본부장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함께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현직 교감 선생님께서 성실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분인데 앞으로 전체 사역을 컨트롤 하고 이끌게 됩니다. 봄이 되면 마당 정리작업과 건물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재정 적인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도스교육센터 사역

삼성엔지니어링이 발하쉬 호수 근처에 화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 봉사 차원에서 사회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지원 받고 기아대책에서 모니터링하며 진행하게 되는데 카작에 있는 고려인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67명의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 달에 \$70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센터의 1년 사업을 매칭 형식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꿈 꾸는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교육센터와 복지센터가 같이 모여서 연말 크리스마스 축제와 설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간 강당 없어서 고생을 했었는데 신축한 복지센터의 강당에서 마음껏 축제의 한마당을 열게 되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산나교회소식

'생명의 삶 3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존에 생명의 삶을 수료한 지체들이 '새로운 삶' 공부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목자들을 세미나에 보내서 격려하며 다시금 힘을 받고 사역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4월에는 침례식을 거행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도스 NGO에 현지 디렉터를 채용함에 따라서 좀더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은 과도기라서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 수상 (2013년 11월25일)

년 말에 한국 정부로부터 전세계에 나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카작 한국대사관의 추천으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알리지 못하고 시상식 참석 차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했는데 후원 동역자님들에게 알리고 기쁨과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친구들의 조언에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해도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두 손 들어 주십시오>

1. .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와 보호의 장막에 있고 성령 충만 하도록
2. . 아산나 교회의 가정교회 목자들이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되고 ,목장이 부흥되도록
3. . 센터에 중고차가 필요한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4. . 센터 입구의 도로포장과 난방관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을 시청에 요청했는데 응답이 있도록
5. . 센터 '레지아' 선생님의 태를 열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6. . 몇 분의 선생님 가정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주님이 준비시켜 주소서

2014년 2월 28일 송ㅇ드르/스르 선교사 올림